

# 제소사태까지 빛은 '노사연시리즈'

신문지면을 구석구석까지 살살이 읽는 이들이라면 사회면 가십란에서 얼마전 희한한 기사를 발견했을 것이다. T.V시청자들에게 본업인 가수로서 보다는 오히려 순발력있는 재담과 유머로 더 익숙한 노사연씨가 모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바로 그것인데, 이야긴즉슨 이렇다.

최근 몇달사이 엄청난 인기를 끌며 10종이 훨씬 넘게 나온 이른바 '최불암시리즈'의 뒤를 이어 '노사연시리즈'도 몇권 단행본으로 서점가에 선을 보이게 됐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노사연씨로서는 결코 묵묵히 참을 만한 수준이 못된다는 점. 노씨 측 설명을 따르자면 이 책들은 자신을 시집 못가

안달하는 못생긴 노처녀, 불결하고 뻔뻔한 성격의 인물로 묘사해 웃음보다는 불쾌감을 주고 있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노씨나 제소당한 출판사 입장에서 이 사건이 자못 심각한 것임에 틀림없겠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제3자로서 솔직하게 말해 그저 씩씩하기만 한 한편의 코미디로 비춰질 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최불암은 아무 말 않는데 노사연은 웬 수선이나" 하는 식의, 노씨의 대범하지 못함에 대한 가벼운 타박에 기인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오죽 널 책이 없으면 그런 책을 냈겠느냐"는 그것마저도 결국은 덜컥 제동이 걸리고 말았구나

하는 식의, 한심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데서 기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입장에서 이 코미디가 유쾌하지 못한 데에는 뒤의 이유가 더 큰몫을 차지한다. 한마디로 나와서는 안될 책이 나와 활개를 치다 덜미를 잡힌 꼴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을 유머와, 나아가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삼았던 서독의 콜 전 수상 관련 笑話集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엄청나다. 한쪽은 단지 말장난에 불과한 저급한 코미디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신랄한 풍자와 여유있는 유머가 함께 한다.

이번 사건은, 출판에 별달리 깊은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는 '노사연이 소를 제기했다'는 연예계 소식만이 흥미를 끌겠지만,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출판사가 노사연한테 제소당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노사연한테까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그럴 경우 '노사연'은 결코 고유명사가 아님을 명시해둔다. — 강철주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104호 / 1992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鏞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鎮

임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牧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李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啓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德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瀟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瑛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毅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爽鍾 | 鄭雲喆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慶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개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지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료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도 다산 정약용의 서신을 추려 엮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편역, 창작과 비평사)에 실린 책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인용한다.

### 세상을 구했던 책을 읽어라

내가 앞서 누누이 말했듯이 淸族은 비록 독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저절로 존중받을 수가 있으나 廢族이 되어 세련된 교양이 없으면 더욱 가증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알잡아보는 것도 또한 서글픈 일일진대 하물며 지금 너희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알잡아보고 있으니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다. 너희들이 끝끝내 배우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포기해 버린다면 내가 해놓은 바 저술과 간추려 놓은 것들을 앞으로 누가 모아서 책을 엮고 교정을 하며 정리하겠느냐? 이 일을 못한다면 내 책들은 더 이상 전해질 수 없을 것이며,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司憲府의 啓文과 獄案만 믿고서 나를 평가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 취급을 받겠느냐? 아무쪼록 너희들은 이런 점들까지 생각해서 다시 분발하여 공부해서 내가 이어온 실낱같이 된 우리 집안의 글하는 전통을 너희들이 더욱 키우고 번창하게 해보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은 물론

아무리 대대로 벼슬 높은 집안이라도 우리 집안의 淸貴와는 감히 견줄 수 없을 것이니 무엇이 괴롭다고 이런 일을 버리고 도모하지 않느냐.

요즈음 한두 젊은이들이 元·明 때의 경조부박한 망명된 사람들이 가난과 괴로움을 극한적으로 표현한 말들을 모방해다가 絶句나 短律을 만들어 당대의 문장인 것처럼 자부하며 거만하게 남의 글이나 욕하고 고전적인 그들을 깎아 내리는 것은 내가 보기에 불쌍하기 짝이 없다. 반드시 처음에는 經學공부를 하여 밑바탕을 다진 후에 옛날의 역사책을 섭렵하여 옛 정치의 득실과 잘 다스려진 이유와 어지러웠던 이유 등의 근원을 캐볼 뿐 아니라 또 모름지기 실용의 학문, 즉 實學에 마음을 두고 옛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구했던 글들을 즐겨 읽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 항상 만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만물을 자라게 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뒤라야만 바야흐로 참다운 독서를 한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된 뒤 더러 안개끼인 아침, 달 뜨는 저녁, 짙은 녹음, 가랑비 내리는 날을 보고 문득 마음에 자극이 와서 한가롭게 생각이 떠올라 그냥 운율이 나오고 저절로 시가 되어질 때, 천지 자연의 음향이 제 소리를 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시인이 제 역할을 해내는 경지일 것이다. 나보고 너무 실현성

없는 이야기만 한다고 하지 말거라.

요 근래 수십년 이래로 한가지 괴이한 논의가 있어 우리 문학을 아주 배척하고 있다.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옛 문헌이나 문집에는 눈도 주지 않으려하니 이거야말로 병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사대부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옛일들을 알지 못하고 선배들의 의론했던 것을 읽지 않는다면 비록 그 학문이 고금을 꿰뚫고 있다 해도 그저 엉터리가 될 뿐이다. 다만 시집 같은 거야 서둘러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신하가 임금께 올린 상소문, 비문, 예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서간문 등을 모름지기 읽어 안목을 넓혀야 한다. 또 「鵝洲雜錄」 「盤池漫錄」 「淸野漫輯」 등의 책은 반드시 널리 찾아서 두루두루 보아야 할 것이다.

### 저서할 때 유의할 사항

명나라 淸나라 이래로 經書에 관한 학문의 갈래가 많아 각자 여러 종류의 책을 냈지만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는 책은 거의 없다. 그러나 「周易」과 「禮記」에 관한 두 책은 나의 견해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미개척 분야가 개척되었다. 하늘이 총명함을 가져서 한 사람에게 아름답음이 다 돌아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다. 喪禮는 비록 이미 정리가 되었지만 王朝禮는 논하여 저술한 적이 없다. 하물며 吉禮·嘉禮·

軍禮·賓禮 등에는 연구분야가 아직 넓게 남아 있으니, 이런 게 이른바 "남아 다하지 않는 북이 있어 자손에게 남겨 준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왕조례와 상례를 증보하는 데는 그런대로 의거할 책이 있으니, 곧 상국 金在魯가 임금님께 바친 여러가지 설이다. 이 학설은 모두가 禮經을 깊이 연구하였고 孔孟의 옛날 뜻에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 책이야말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책이다. 毛大可는 전혀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오래전에 책으로 저술하여 그의 저서를 論辯하려 했으나 이루 다 지적할 수가 없어 그만 두었다.

무릇 저서하는 법은 經傳에 대한 저서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은 세상을 經綸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학문이고 국방과 여러가지 기구에 관한 분야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자질구레한 이야기들로 한때의 괴상한 웃음이나 자아내는 책이라든지, 진부하고 새롭지 못한 이야기나 지리멸렬하고 쓸모없는 議論따위는 한갓 종이와 먹만 허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차라리 손수 맛있는 과일이나 영양가 높은 채소를 심어 살아 있는 동안의 생활이나 넉넉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